

일 주 문

동국대 108주년 기념관 기금 기부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10월 14일 동국대를 찾아 건학108주년 기념관 건립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억원을 전달했다.

불어판 <깨달음> 출간 봉정식
향적 스님은 10월 23일 오후 1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어판 <깨달음>에는 국경이 없다 출간 기념 봉정식을 연다.

뉴고려병원과 의료MOU
중앙승가대 총장 원형 스님은 10월 6일 중앙승가대에서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과 승가대 스님 의료비 감면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정호당 성준 스님 추모 다례제
속초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10월 17일 설악산 신흥사 중창 법주인 정호당 성준 스님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다.

학업원만성취 3000배 기도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10월 25일부터 매일 3000배 학업원만 성취 정진기도를 진행한다.

제4회 어린이미술대회 개최
서울 조계사 주지 원평 스님은 11월 2일 조계사에서 제4회 어린이미술대회 '나는 화가다'를 개최한다.

제4회 전국금강경 강승대회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은 10월 18일 서울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제4회 전국금강경 강승대회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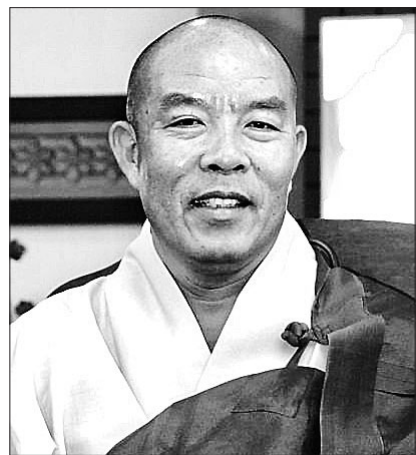
장애인아시아게임 기념 범패 시연
범패와작법무보존회 회장 능화 스님은 10월 19일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게임 성만을 위해 대회에서 범패 시연을 선보였다.

제8회 금강대 국내학술대회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10월 25~26일 2일간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한국 천태법화사상의 역사적 전개' 제8회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장관 표창
전병훈 동국대 교수는 10월 15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산학협력 엑스포'에서 학생창업활성화 유공자로 선정,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불교 미래 밝힐 스님들 지원 할 터”

조계종 제3기 장학위원장 보광 스님



중단 장학생 선발 스님들 외국서도 공지 갖고 공부 원할한 장학금·지원 위해 장기적으로 재단 설립돼야

“중단 장학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계속 위원장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사하려고 했는데 총무원장, 교육원장 스님이 추천하셔서 다시 소임을 보게 됐습니다. 3번째 위원장인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난 10월 7일 조계종 제3기 장학위원장으로 위촉된 보광 스님(사진)은 14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소회를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보광 스님은 중단 장학금 선발제도가 연임을 이어온 현 집행부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또한 엄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선발된 스님들의 자긍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일본 인도학불교학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중단 장학금 수혜자인 법장 스님이 발표했습니다. 장학위원장으로 서 매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중단 장학금으로 선발되면 해외 대학에서 ‘조계종이 인정한 인재’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단 장학금들의 자긍심은 매우 높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5년 장학금 선발에 대한 계획과 선발 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보광 스님은 불교의 미래를 밝히 승가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했다. 비교적 연구와 전문가가 적은 계율, 한국 근

양한 분야에서 스님들이 활동해야 한국 불교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고, 장학위원회는 그런 초석을 닦는 일을 해야 합니다.”
늘어나는 장학생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장기적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보광 스님은 주장했다. 조계종 중단 장학금은 지난 2011년 6명, 2012년 7명, 2013년 3명, 2014년 20명이 선정됐으며 현재 국내외 25명의 장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 2012년 1,925만원이었던 장학금 지원 규모도 해마다 늘어 올해는 1억7400만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승가교육진흥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3억 원가량은 한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조계종 장학위원회는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015년 중단 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국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석·박사 과정에 수학 중인 스님이다.
선발분야는 불교학, 불교사, 불교문화, 응용불교학, 언어학, 기타 전공으로 나뉜다. 중점 선발분야는 계율(율장·정규), 한국불교사(근·현대), 불교윤리학(생명·생태), 불교문화(문화·예술·건축·콘텐츠)로 해당 지원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신성민 기자 mot679@hyunbul.com

신계사 복원 7주년 합동법회 봉행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는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과 함께 10월 13일 오후 12시 금강산 신계사에서 '신계사 복원 7주년 조국통일기원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남북 불교도가 함께 나누는 것은 지난 6월 29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만해스님 열반 70주기 남북합동다례제를 봉행한 이후 4개월만이다.
남측 대표단으로는 지홍 스님을 비롯 중앙종회 부위원장 정목, 기획실장 일간, 총무원 사회부장 정문, 정책특별단장 정범, 조계사 주지 원평, 108산사순례지도회 회주 혜자 스님 등이, 북측 대표단으로는 조보철 리규봉 부위원장, 차금철 서기장, 신계사 주지 진각스님, 리현숙 조선불교도연맹 전국신도회 부회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가했다.
지홍 스님은 봉행사에서 “불자들이 불교와 민족 번영의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길에 나서야 한다”며 “합동법회를 계기로 남북 불교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길을 다시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배현진 기자

“사부대중 위한 열린 수행공간 마련”

울산에 수행공간 불사 윤광식 대표



(주)현대플랜타이트 윤광식 대표(52세)가 울산 시내권에 스님들의 수행공간 불사를 계획해 눈길을 끈다. 10년전 울산 염포동에 위치한 현대그룹 건부 사택지 1만여 평을 사업상 매입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교를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평소 노스님들의 노후복지 시설이 열악하다는 얘기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재가자들이 수행하는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에 3천 여 평의 종교시설과 5천여평의 복합시설, 2천여평의 의료시설 등으로 구성된 수행공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스님들은 물론 일반인들을 위한 참선공간, 템플스테이관 등도 갖추어 다용도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직은 설계 단계지만 앞으로 건축과정에 전문가를 자문을 구해 저렴한 실비용으로 건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종단의 위락운영 등도 고려해 사부대중들의 수행을 돕겠습니다.”
3년전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박 대표는 적어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장

지구촌공생회 자비의협쌀 나누기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10월 17일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와 함께 익산 저소득 가정을 후원하기 위해 자비의 협쌀 400kg을 익산시청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지구촌공생회 사무처장 덕림 스님과 익산시회 박순자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자비협쌀은 지구촌공생회 봉사동호회 '투비위도두' 회원들이 모은 것이다.
노덕현 기자

군종교구, 양평 20사단 자장면 공양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10월 14일 경기도 양평 소재 20사단 12전차대대를 방문해 군장병들과 자장면 공양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BTN불교TV 무상사(회주 성우) 신도회와 함께 했다. 이날 조계종 원로의원 성우 스님과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제20기계화보병사단 김삼철 사단장 등과 환담을 나누는 뒤, 무상사 신도 40여명과 함께 호국연화사 신축불사 현장을 둘러보고 불사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김삼철 서보실업 대표, 1억 기부



김삼철 서보실업 대표는 10월 16일 김희옥 동국대 총장을 방문해 바이오관 건립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동국대 농과대학 농학과 63학번인 김 대표는 “동국대의 인재 양성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간 동국대가 근로장학사 건립, 교지매입 등 주요 모금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여러 차례 기부한 바 있으며, 이번 기부를 포함한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총 2억 7천여만 원을 넘었다.
노덕현 기자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안내

신청기한 (2014년 12월 31일까지)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피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올해 말까지 피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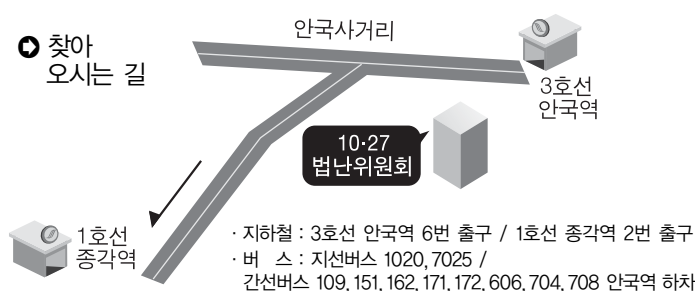
- 1 신청기한 : 2014. 12. 31. 까지
2 신청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1)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3)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사람의 유족
4)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승려이거나 승려의 신분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장
나.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
1)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3 신청서 접수기관
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1) 직접(방문) 제출 : 일과 시간 내(09:00 ~ 18:00)
2) 우편 제출 : 신청기간 내 도달
나. 주소 : 우 110-300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9층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2 신청서 제출서류
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1)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1부
2) 피해경위서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 서류에 아래 서류를 더함.
가)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유족)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소속된 종교단체의 장) 피해자의 소속 종교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
1)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경위서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한 경우, 2)의 서류 생략 가능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 서류에 아래 서류를 더함.
가)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5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료비, 간호비, 보조장구 구입비 등을 산정.
6 심의·결정절차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사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
7 기타
신청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1027beopnan.go.kr) 내 「피해자 신고서식」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전화 (02)738-62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7법난 관련 자료를 찾습니다

- 자료범위 : 법난 관련 신문기사, 영상물, 사진, 일기문, 기고문, 서신, 증언록 등
● 방 법 : 전화, 방문, 우편제출 등
● 활용계획 : 향후 건립될 기념관·전시관 내 전시 및 자료발간 등
● 기 타 : 기증서 전달 및 제공자 명명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8(관훈동) 동덕빌딩 9층
연락처 : (02)738-6210